

속도 한글 타자기의 보급
(공병우 박사 자서전에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민주당 정권은 무너졌다. 5.16 이후 군사 정권은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되어 정부의 행정기관을 장악하였고 각 행정기관은 물론 근기관까지도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내무부는 행정장비 근대화 계획으로 전국 도 산하 시군에 한글 타자기를 30대씩 구입,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1962년 3월 어느날 강원도에 교재를 납품해오던 이인규씨가 나에게 찾아와서 한글 타자기에 관한 것을 물었다. 나는 내가 발명한 세벌식 속도 타자기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세벌식 속도 타자기는 5분간 설명하고 10분간 타자 연습 하면 누구나 한글을 타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타자수가 필요없고 전 공무원 누구나 타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인규씨는 내 설명을 감명깊게 듣고 타자기에 대한 선전 유인물을 가지고 갔다. 그 후 이인규씨는 강원도청 고위층과 세벌식 속도 타자기에 대해 장점을 설명한 결과, 30명의 타자수에게 지불하기로 세웠던 예산으로 타자기를 더 구입하여 강원도 시군읍까지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공병우-김영목의 직결글을 direct.ttf를 사용했습니다.

[illegible][illegible]

0` 3/3/0/0 124707 1470/ neohpen2.ttf 00/000
 10/000/000/000/ 1100000.